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하나님의 나라 제목: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성경: 누가복음 17장 20-21절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눅17:20-21)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심.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서 많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쉽지는 않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초점이 달라서이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지 않으면 쉽지 않다.

4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

-공통적인 기준 : 이미 혹은 아직 아닌 하나님의 나라 (already but not yet)

1.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받아들임)

-특히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구분된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뜻. already but not yet.(특히 인격)

2. 복음의 전파와 그로 인해서 변화된 세상(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초점이 있는 곳.)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already but not yet.(특히 장소, 공간적 개념. earth)

3. 인자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종말론의 초점이 있는

곳.) already but not yet.(특히 시간적 개념. 초림 already 재림 not yet.)

4.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자들의 초점이 있는 곳.) already but not yet.(하늘 나라)

-우리가 주로 관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1,2번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

1.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막9:1)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8)

-성령강림으로 본격적인 2번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 이것을 보게 될 자들도 있다는 의미. 특히 환상을 보는 은사가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더 분명한 의미전달이 됨.

2. 시공을 초월해 있다.

3.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나라

4.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1:15)

5.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3:3)

6.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증거와 관계가 있다.

1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눅8:1)

6.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다.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12:28)

7.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 (자격기준의 초점이 다르다.)

31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21:31)

8. 빼앗기는 자들이 있고,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다.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21:43)

-빼앗기는 자들은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

9.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25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눅18:25)

-세속적 부의 개념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10.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과도 관계가 있다.

31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눅21:31)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회개(반성) 할 수 있는 자. 지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자. 날마다 그 옷을 빼는 자. (옷은 인격을 뜻함. 날마다 발을 씻으며, 남의 발까지 씻기는 자. 성만찬의 의미가 포함됨.)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가?

- 율법주의와 정죄에 빠지지 않고 어떤 순간이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

- 이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애쓰는 자.

- 어차피 이땅에서의 삶은 짧으므로 다음세대와의 연합에 힘써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 믿음, 소망, 사랑.

- 예수를 본 받아 사랑하고 섬기라.

- 악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 아멘.

<찬양예배>

주제:전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 말씀:
누가복음 13장 18-30절

18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20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22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26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28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9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30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눅13:18-30)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그 자체로도 비교가 된다.

같은 의미의 두가지 비유인 썸.

겨자씨는 나무에 비해 아주 작다.

누룩도 가루 서말에 비해 아주 작다.

겨자씨와 누룩은 모두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

생명은 작아도 생명이다. 세포하나가 장성하게 된다.

하나님나라의 생명력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에서 채소밭, 겨자씨, 나무, 공중, 새를 각각 풀어내는 것은 무식한 것이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의 확장, 성장,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것이다.

누룩의 비유에서도 누룩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두 비유를 함께 사용하신 이유는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2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 더니

예수님은 하나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도여행을 병행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

-작은 문이 아니다. 뚱뚱한자 불가가 아님. 재물을 들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아무리 흘쩍해도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음.

-즉 세속적인 것을 들고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힘쓰라. 가지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라는 뜻이 아니다.

-대충, 쉽게 되지 않는다는 뜻.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티켓은 끊었어도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

-마치 비행기 티켓을 끊었지만(돈만 있으면 됨), 탑승을 위해서 짐을 조사하고 실는 것은 다른 문제. (뚱뚱한 것과 상관없음.)

-좁은 문은 한사람 한사람 그 신원을 확인한다는 뜻.

- 그래서 들어가고는 싶으나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많게 됨.
- 어떤 사람은 집 주인에게(하나님께) 눈도장을 많이 찍었다.
- 가르침을 베풀 때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 함께 식사도 하며 때로는 밥을 사기도 했다.
- 주인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기도 했으며,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다.
(주인의 이름으로 내어 쫓은 것이 그 사람의 경건으로가 아니다.)
- 내가 기도해서 귀신이 나간게 아니라, 주인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간 것이다. 내가 스스로 주인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내가 주인과 절친은 아니라는 뜻.
-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에서 검열하시는 분은 주인의 천사.
-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들!
- 그러나 행악자들이라. 하나님나라를 해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지 못하는 자들. 이들은 검열에 걸림.